

19년 일해도 타업체 10년차보다 못받는다 사측의 KT인건비 많다는 시뻐건 거짓말

지난해 KT는 1조 2천억원이라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중에서 9번째로 많은 순이익을 거둬 드린 것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고 순이익이 많아도 조합원들은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측이 인건비가 많다고 맨날 떠들어 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종업체 현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LG데이콤의 연간 평균급여(12년 근속)가 6천5백만원입니다. 하나로텔레콤(평균근속 6년)은 6천만원에 이릅니다. 19년 근속해봐야 동종업계 평균 급여도 못받는 처지인데 급여가 많아보입니까?

상식적으로 19년 경력자가 12년 경력자보다 급여가 적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연봉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지요.

사측은 통신환경이 어려워져 임금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통신시장이 정체되어 있어서 주주들의 요구가 많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LG데이콤이나 하나로통신은 통신환경이 좋아서 급여를 많이 주겠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주주들의 압력이 하나도 없단 말씀입니까?

적어도 직원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실질임금 확보와 이익에 대한 정당한 배분을 위해 반드시 임금인상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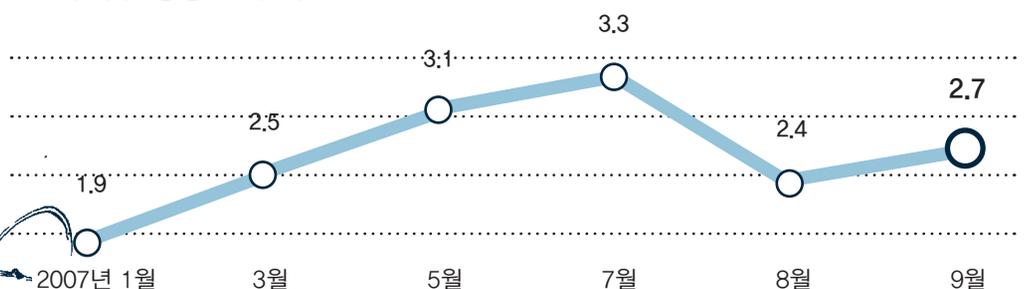


물가도 급등하는데 먹고는 살아야죠!

올해만 해도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반기들어서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류의 물가와 공공서비스 요금이 상승했습니다. 유가 인상으로 인해 내년에는 그 폭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년 넘게 물가인상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기필코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단위 : 전년동월비 %, 자료 : 통계청)



뿌리 뽑자! “카더라” 통신!

“김빠지 술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유언비어에 속지마세요”

매년 단체교섭 때면 흘러드는 악소문이 있습니다. 언제 타결된다더라, 이번에 임금은 〇%인상된다더라, 임단협 후 조직개편이 있다더라 등의 소문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인 ‘물타기’수법입니다. 조합원들의 기대와 관심이 고조될 즈음 ‘결과는 뻔하다’라는 식으로 소문을 퍼트려 조합원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술수인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러한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고 노동조합의 소식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들의 말을 조심하세요”

관리자들이 은근 슬쩍 흘리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들은 고도로 계산된 수법을 통해 조합원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합니다. 임단협에 돌입하기전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아서 조합원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그부분을 건드려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3, 6, 9 대란설이 한참 떠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년 3월, 6월, 9월이 다가오면 각종 구조조정설, 명퇴설을 통해 현업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조합원여러분!

가장 정확한 소식은 바로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함께해요!!!

- 노동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 조합원게시판에 여러분의 임단협에 대한 기대와 지지글을 남겨주세요
- 매일 발행되는 소식지를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 조합원들과 단체교섭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해주십시오.
- 지부장에게 단체교섭 상황을 자주 물어보세요
- 단체교섭을 참관해주십시오.(신청: 031-727-4841 조직처)